류현진 '토론토의 파랑새' 됐다

4년 8000만 달러에 대박 계약
전 구단 상대 트레이드 거부권
박찬호·추신수 넘고 한국선수 최고액

류현진(32)이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4년 8000만달러(약 929억4000만원)에 입단 합의했다.

미국 MLB닷컴은 23일 "류현진이 토론토와 계약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구단은 아직 확정 발표를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MLB 네트워크의 존 헤이먼 기자는 2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류현진이 토론토로 향한다. 4년 8000만달러의 조건"이라고 썼다.

류현진의 국내 매니지먼트사 에이스펙 코퍼레이션도 "류현진이 토론토와 긴밀히 협상한 건 맞다. 토론토행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 남은 투수 중 최대어로 꼽힌 류현진은 정황상 토론토와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USA투데이의 봅 나이팅게일 기자는 "류현진이 옵트 아웃(일정한 조건을 채우면 기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항)은 없고, 전 구단 상대 트레이드 거부권이 있는 계약을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애초 류현진은 익숙한 캘리포니아 지역팀을 선호했다. 미국 원정 경기마다 국경을 넘어야 하는 캐나다 연고 팀인 토론토에 대한 부담감을 살짝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토론토가 류현진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했고, 토론토 입단을 눈앞에 뒀다.

한국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에서 2006년 프로 생활을 시작한 류현진은 2013년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 시스템을 거쳐 미국 메이저리그로 직행했다. KBO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직행한 최초 사례였다. 류현진은 다저스와 6년 3600만달러에 사인했다.

2018년 시즌 종료 뒤 FA 자격을 얻은 류현진은 다저스가 제시한 퀄리파잉오퍼(QO)를 받아들여 1년 1790만달러에 계약했다.

2019년 류현진은 14승 5패 평균자책점 2.32로 호투하며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투표에서 2위에 올랐다. 평균자책점은 메이저리그 전체 1위였다. 류현진의 메이저리그 개인 통산 성적은 54승 33패 평균자책점 2.98이다.

류현진은 토론토와 계약을 마치면 연평균 2000만달러의 고액 연봉자가 된다.

역대 한국인 메이저리그 FA 최대 규모 계약은 추신수가 2013년 12월 22일 텍사스 레인저스와 한 7년 1억 3000만달러다. 한국인 투수 FA 최대 규모 계약은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거' 박찬호가 2001년 12월 21일, 텍사스와 맺은 5년 6500만달러다.

류현진과 토론토의 계약이 공식화하면 '한국인 투수 FA 최대 규모 계약'이 바뀐다. 또한 류현진은 연평균 2000만달러로, 1857만달러의 추신수를 넘어 '한국인 FA 연평균 최고액' 기록도 세운다.

토론토 구단 역사에도 손꼽히는 계약 규모다.

류현진은 토론토 구단 역사상 베론 웰스(7년 1억 2600만달러), 러셀 마틴(5년 8200만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의 FA 계약 성사를 앞두고 있다.

토론토는 메이저리그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에 속했다. 홈구장은 캐나다 토론토의 로저스센터다.

뉴욕 양키스, 보스턴 레드삭스 등 전통의 강호와 같은 지구에 속한 토론토는 1992년과 1993년 두 차례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고, 지구 1위는 6번 달성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포스트시즌 무대를 밟지 못한 토론토는 '1선발' 류현진 영입에 공을 들였다. /연합뉴스

'고교 득점왕' 허율 광주 FC 유니폼

금호고 출신 올 K리그 U18 챔피언십 7골…193㎝ 장신에 헤더·슈팅 장점

금호고 출신의 '고교 득점왕' 허율(18)이 광주 FC 유니폼을 입는다.

광주가 23일 "산하 U-18 금호고 출신으로 2020 우선지명된 허율을 프로무대로 콜업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허율은 고교 졸업과 동시에 프로 무대에 도전하게 됐다.

허율은 193cm·84kg의 강력한 피지컬을 이용한 포스트플레이와 헤더, 침착한 슈팅이 돋보이는 타깃형 스트라이커다.

장신이지만 100m를 12초 초반에 주파하는 스피드와 뛰어난 발기술까지 고루 갖추면서 광주의 득점을 책임질 자원으로 평가받는다.

허율은 최고의 2019시즌을 보냈다.

지난 8월 2019 K리그 U-18 챔피언십에서 7골을 몰아넣으면서 득점왕에 올랐고, 팀의 대회 첫 우승의 주역이 됐다. 11월에 치러진 2019 전국고교 왕중왕전에서도 금호고의 2관왕을 이끌며 최우수선수(3골)로 선정됐다.

대표팀에서도 허율은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U-19 대표팀에 승선한 허율은 2019 판다컵과 GSB 방콕 컵, 2020 AFC U-19 챔피언십 조별예선 등에서 5경기 3득점을 기록하는 등 연령별 대표팀에서도 핵심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다.

허율은 "구단에서 콜업한 이유는 실력을 인정해서가 아닌, 더 큰 무대에서 경쟁하고 증명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더 많이 배우고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휴식기를 보내고 있는 광주 선수들은 내달 2일 소집, 순천 일대에서 2020시즌을 대비한 동계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

손흥민 '운수 나쁜 날'

첼시전 시즌 두번째 퇴장…평점 최저

이번 시즌에만 두 번째 퇴장을 당한 손흥민(27·토트넘)이 현지 매체의 평가에서도 저조한 평점을 기록했다.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23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토트넘과 첼시의 2019-2020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를 마치고 손흥민에게 양 팀 선수 중 가장 낮은 평점 3점을 부여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후반 17분 상대 수비수 안토니오 뤼디거에 대한 가격 행위로 레드카드를 받았다. 경합 과정에서 넘어진 뒤 뤼디거를 향해 발을 뻗은 것이 문제였다.

0-2 완패로 토트넘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낮은 평점을 기록한 가운데 수적 열세를 만든 책임을 피할 수 없었던 손흥민은 골키퍼 파울로 가사니가와 함께 가장 낮은 3점을 받았다.

축구 통계전문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에게 4.89점을 줬다.

시즌 첫 퇴장이 나왔던 에버턴과의 11라운드 때의 5.69점보다도 훨씬 낮은 이번 시즌 개인 최저 평점이다. 영국 축구전문 매체 풋볼런던은 평점 '1점'으로 혹평했다. /연합뉴스

신범수 "진짜 야구선수로 돌아오겠다"

KIA 포수로 올 시즌 39경기…류승현·강이준·장지수와 입대
"1군 무대 뛰며 좋은 경험…강렬한 인상 주는 선수 되고 싶어"

"임팩트 있는 선수가 되어서 돌아오겠습니다."

KIA타이거즈의 포수 신범수가 23일 입대를 위해 논산훈련소로 떠났다.

상무야구단 서류 전형에 합격했던 신범수는 지난 2일 발표된 최종 명단에서 빠지면서 현역 입대를 결정했다.

신범수는 "주변에서 아쉽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한 번 더 해볼까 고민도 했는데 더 늦어지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상무 발표 전에도 혹시 안 되면 현역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언급했다.

1월 중순 입대를 준비했던 신범수는 추가 모집에 합격하면서 예정보다 한 달 빠르게 군복무를 시작하게 됐다. 공교롭게 '경쟁자'였던 상무 합격자들과 같은 날 같은 곳에서 훈련병이 됐다. 특히 '절친'인 내야수 류승현도 상무 소속으로 이날 함께 입대했다. 전역 날짜도 2021년 7월 6일로 같다.

신범수는 "상무는 못 가지만 상무 선수처럼 다녀오는 느낌을 내보려 한다(웃음)"며 "처음 상무 합격자 발표 나고 화장실에서 멍하니 있었다. 마음은 비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다. 발표 전날에 승현이랑 누가 붙든 진심으로 축하해주자고 이야기를 했었다. 내가 먼저 승현이한테 축하한다고 문자를 보냈다. 승현이는 괜히 미안해했는데 같이 훈련소에 가게 됐다. 최대한 같이 붙어 있을 생각이다"고 웃었다.

지난해 1군 무대에 데뷔해 타격 잠재력을 보여준 신범수는 올 시즌 초반에는 한승택과 배터리를 구성하면서 경험을 쌓았다. 꾸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올 시즌 39경기에 나와 '여유'를 배웠다.

신범수는 "올 시즌 1군에서 최대한 많이 뛰면서 국군체육부대에 가는 게 목표였다. 그런데 방망이 감이 좋을 때 그걸 오랫동안 유지를 못한 게 아쉽다. 안 되면 급해지기도 하고 꾸준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아쉽다. 야구가 정말 쉬운 게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특히 올해는 마음도 커야 되고 대담해야 하는 걸 느꼈다"며 "그래도 올 시즌에는 여유가 생긴 것 같다. 경기를 하면서 덜 긴장해서 좋다. 여유가 많이 생겼다"고 돌아봤다.

신범수는 당분간 보통의 청년이 돼 앞선 시간을 돌아보고 강한 미래를 준비할 생각이다.

"(박)찬호형이 원래 진지한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인생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말해줬다"며 웃은 신범수는 "낯을 많이 가려서 걱정이지만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지내는 것에 대한 기대도 된다. 나보다 어린 사람, 사회 생활하는 사람의 생각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예전과 달리 군에서 휴대폰 사용도 되니 휴식 시간에 야구를 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 군대에서 몸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서 올 생각이다"며 "뭔가 저를 떠올리면 임팩트가 강렬하고 안 잊혀지는 선수가 되고 싶다. 다녀와서는 강렬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23일 KIA 선수들이 대거 군대로 떠났다.

신범수, 류승현과 함께 투수 강이준, 장지수가 상무 소속으로 동반 입대했고 내야수 오정환도 같은 날 현역으로 국방의 의무를 시작했다. 투수 나용기도 공익근무 요원으로 이날 훈련소에 입소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